

## 화상 네트워크 속의 근대 조선을 묻다

[서평] 石川亮太(2016),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 — 開港・華商・帝国』, 名古屋大学出版会, 568쪽.

강진아\*

이 책은 리츠메칸대학(立命館大學)의 이시카와 료타 교수가 개항기 조선 경제와 화상(華商) 교역 활동에 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펴낸 첫 저작이다. 조선 밖의 동아시아 지역 간 무역과 조선 내의 전통 상업 질서와의 교섭 양 측면에서 조선화상의 교역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면서, 근대 아시아시장에서 조선이라는 시장의 위치를 새롭게 묻고 있다.

평자 역시 동순태호(同順泰號)를 사례로 동아시아 개항장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광동상인 네트워크 속에서 조선화상의 진출과 특수성을 탐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출판을 누구보다 기다렸다. 여러 면에서 저자의 문제의식은 평자의 학문적 관심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자는 중국 광동성의 재정과 금융을 다루면서 잡종화폐의 정리와 화폐통일, 환투기와 국가의 금융 규제에 관해 다수의 글을 쓴 바 있는데(강진아 2001, 2002), 저자인 이시카와 교수 역시 일찍부터 루블화와 조선은행권의 만주(滿洲) 지역 유통에 관해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지역은 다르지만 중국의 잡종화폐 문제를 조선과 연계시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石川亮太 2001, 2002). 이시카와 교수의 저서 곳곳에서 깊은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하마시타 타케시(濱下武志) 교수와 후루타 카즈코(古田和子) 교수의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론,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 교수의 개항기 조청(朝淸) 관계에 관한 연구는 평자 역시 은사(恩師), 지적 동반자이자 역자(譯者) 등 여러 형태로 사적·학문적으로 남다른 영향을 받았다. 저자와 평가가 동순태호(同順泰號)에 관한 첫 논문을 공간한 것이 마침 2004년이었는데, 서로의 연구를 모르다가 소개를 해준 사람이 오카모토 다카시 교토부립대학 교수였다.

평자는 중국사와 광동화상네트워크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동순태호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한국사학계의 성과에는 비교적 어두웠지만, 조선이라는 시장 자체에 관심이 큰 저자는 최신의 한국사 연구 성과를 섭취하여 또 다른 시각에서 동순태호 연구를 풍부히 해주었다. 또한 평자가 부분적으로 분석한 『동순태왕복문서(同順泰往復文書)』를 저자는 정리되지 않은 31권에서 35권까지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꼼꼼히 분석하였다. 평자는 이시카와 교수가 이미 규장각 자료를 이용해 1894년, 1895년의 동순태호 교역을 훌륭하게 정리, 분석했기 때문에, 새로 발굴한 서울대 고문헌자료실의 1907년 정미년 장부에 집중하여 분석했다. 또 처음부터 교역 네트워크에서 일본의 역할에 주목한 이시카와 교수와 달리, 상해를 중심으로 한 광동 출신의 관상(官商) 네트워크와 상해를 센터로 배포되는 당류(糖類), 복권(彩票) 등 특정 물품의 동아시아적 환류에 더욱 저술의 비중을 두었다(강진아 2008, 2011(1), 2011(2)). 그러므로 이번에 출판된 이시카와 교수의 책은 어떤 다른 개성을 드러낼지 기대가 컸다. 마침 한국사 전공자도 아닌 평자에게 한국사연구회에서 서평회를 열어 서평자의 대임(大任)을 맡겨주시고, 서평까지 의뢰를 하여, 본의 아니게 절반은 한국사학계에 초청을 받은 기분으로 기쁘게 이시카와 교수의 책을 한국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서평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평만 읽어도 책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도 다소 딱딱한 경제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시카와 교수의 역저를 되도록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

책은 서장과 종장을 제외하고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은 “화상(華商)으로 살펴본 근대 아시아 시장 속의 조선 개항”으로 책의 문제의식과 사료, 구성을 소개한다. 제1부는 “조선 개항과 화상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화상에 대한 개설적 스케치와 함께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조선이 개항하면서 화상이 등장하는 과정, 일본상인과 화상의 관계, 전통적 한중교역과 개항 이후 교역의 연속성, 조선상인과의 분쟁 문제 등을 다룬다. 제2부 “조선화상의 무역과 다각적 네트워크 - 광동화상 동순태의 사례 분석”은 본론 4장과 말미에 동순태문서를 소개한 보론으로 이뤄졌다. 동순태호가 어떻게 조선에 창설되었는지, 상해와 어떻게 교역하고 결제를 했는지, 조선 내지통상은 어떻게 진행했고 왜 했는지, 청일전쟁 이후 바뀐 정치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차례로 다룬다. 마지막 제3부 “제국으로의 포섭, 제국으로부터의 이탈 - 러시아·일본 통화의 광역적 유통과 화상” 역시 총 4장 구성인데, 만주와 조선을 넘나들었던 루블화, 일본군표, 조선은행권 유통을 살펴보고 일제강점 전후한 조선화상의 상해 송금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통화의 흐름과 이를 이용한 화상의 송금양태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종장 “조선개항기의 역사적 위상 - 화상 네트워크가 만든 『지역』”에서 간단하게 책 전체의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각 장별로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

서장에서 필자는 1876년 개항부터 러일전쟁 후의 보호국화까지의 시기를 조선의 개항기로 설정하고 화상의 동향을 통해 동아시아 시장 속의 조선의 존재 방식을 묻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외압과 그에 대한 조선상인의 대응”이라는 시각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상인의 실태가 충분히 해

명이 안 된 상태에서 대응만 논했다고 비판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한 외국 상인의 활동의 전체상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또 기존의 일본제국주의사 연구 시각은 조일관계만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 뒤, 일본인 상인과 경합한 경쟁자이자 동아시아 시장의 광역적 유통을 담당했던 주체로서 화상을 연구하여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광역적 연구를 위해 필자는 다양한 사료를 구사하였다. 종래의 개항기 연구에서 핵심자료였던 『통상회찬(通商彙纂)』, 『일본외교문서』, 『구한국외교문서』 등의 자료뿐만 아니라, 서울대에 소장된 화상 동순태의 상업 서신과 장부로 이뤄진 동순태문서, 타이완 중앙연구원이 소장한 주한 중국영사관의 보고[주한사관보존당안(駐韓使館保存檔案)], 중국과 일본의 해관 연보, 영국의회문서 중의 영사보고, 홍콩상해은행당안 중의 제물포지점 기록 등 귀중한 자료를 폭넓게 구사하여 조선을 둘러싼 아시아 교역의 전체상을 구성하였다.

제1장 “개항장을 둘러싼 이동과 제도 간의 상극(相剋)”은 개항장의 동아시아적 확대 과정에서 조선의 개항장이 어떻게 위치 지워졌는지 1880년대 부산에서 발생한 덕흥호(德興號)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다. 저자는 기존에 조선 시장을 둘러싸고 청일 간의 이권다툼으로 치부되었던 이 사건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개항장이라는 동아시아 교역의 공간을 바라보는 청일의 시각차라는 면에서 새롭게 해석하였다. 상해(上海)와 고베(神戸) 등 기존의 동아시아 개항장은 조계지가 타국 상인에게 열려있었기 때문에, 두 개항장을 이미 경험한 화상 덕흥호는 부산 일본조계지에서의 거주 및 영업활동의 자유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과의 관계에서 전근대 부산에서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왜관의 통상 특권을 강조하면서 전관조계(專管租界)에서 외국인, 즉 화상의 거주 및 영업활동을 금지하였다. 그러면서도 타국이 일본의 주장을 본받아 조선의 각 개항장마다 전관조계를 설치하는 구실이 될 것이라 저어하여 적극적 단속은 피하는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제2장 “제조 일본인 상인과 화상으로부터의 “자립(自立)” - 해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둘러싸고”는 동아시아 교역의 유통을 장악하던 화상에게서 어떻게 일본 상인이 독립하는가를 조선 해산물 수출에서 다룬다. 해삼, 전복, 상어지느러미 이 세 가지 해산물은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중국에 이 상품들을 수출했었는데, 일본 어민들은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잠수기(潛水器)와 같은 앞선 설비와 선박을 갖추고 조선 연해에서도 이들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활동과 대중국 수출을 확대시켜나갔다. 그러나 대중국 수출과 유통은 어디까지나 나가사키의 화상(華商)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어업을 위한 자본금 역시 화상들에게서 나왔다. 1880년대 말부터 부산수산회사(釜山水産會社) 등 일본 어업자본은 부산에서 천진, 연대 등 중국의 주요 항구로 직수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수출 루트의 수출입 물류 불균형, 결제를 위한 금융 서비스의 미발달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서 나가사키 화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지는 못했고 나가사키 경유 노선이 직수출에 앞섰다. 하지만 점차로 일본의 잠수기 어민이 조선에 정착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나가사키 화상에게 선금을 받아 잠시 조선에 와서 어업을 하고 돌아가는 초기 영업방식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나가사키 화상의 상품 집하력은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일본인 상인들은 나가사키 경유와 직수출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아시아의 해산물 유통루트를 주도적으로 재편하게 된다.

제3장 “전통적 육로무역의 연속과 재편 - 1880년대 홍삼수출과 화상”에서 저자는 1889년에 화교 상점 유증상(裕增祥)이 홍삼 대금으로 끊어준 어음이 부도가 난 사건을 추적하여 개항 후 홍삼 무역에 관여한 화상들의 내력과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 어음은 1882년 조선정부가 청에게 빌린 초상국차관(招商局借款) 50만 량의 상환용으로 청 정부에 넘겼다가 부도가 난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구련성(九連城)이나 봉황성(鳳凰城)의 화상들에게 홍삼 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자주 외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조선 국왕은 개항 후 증대하는 재정 수요, 예를 들면 외채의 상환이나 개화정책의 수행을 위한 비용 마련을 홍삼 판매를 통해 해결했는데, 이렇게 국왕이 수출권을 가지는 “별부삼(別付蔘)”은 예전 책문후시(柵門後市)의 홍삼 육로무역에 관여했던 의주상인(義州商人)과 국경 지역의 화상들이 여전히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였다. 담당 주체에서 개항 전과 후의 연속성이 확인되지만, 개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변화도 보인다. 국경 화상들은 중국 각 개항장에 지점을 열고 홍삼교역에 종사하였고, 의주상인들도 서울과 인천에 진출하여 활약하는 등 바뀐 환경에 적응하여 유통망과 상인 주체 역시 진화하였다.

제4장 “화상의 조선인과의 거래와 분쟁 처리”는 주한사관보존당안(駐韓使館保存檔案)을 사료로 청의 조선주재 영사관 보고 중에 화상과 조선인 사이에 벌어진 쟁송을 분석하여, 소송의 절차와 순서, 양자의 거래 형태와 분쟁의 성격을 살펴본 장이다. 대부분의 쟁송은 수입상(輸入商)인 화상이 조선인 중개업자(仲買人)에게 청의 수입품을 넘겼는데, 열흘 내지 한 달 넘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들이었다. 서울의 시장 관행은 양자 간의 단기 신용을 바탕으로 여러 명의 중개인이 끼면서 사슬처럼 거래가 이어지는 것인데, 화상 역시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거래 형태는 어느 한 구간에서 지불이 미뤄지면 지불 지연이 발생하고, 보증 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추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거둬들인 마찰을 경험하면서 전통적 상습관과 화상 및 일본 상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상습관 사이에 조정과 적응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

제2부의 동순태에 관한 분석은 평자의 저서에 비해 도표와 통계가 정교해지고 보완된 부분이 많지만 크게 보아 결론에서는 같은 내용이 많아서 새로운 내용에 역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제5장 “동순태의 창설과 네트워크

크 형성”은 동순태호의 조선 진출 과정, 동순태호의 자본 관계와 거래망과 내부 조직, 상해 동태호(同泰號)와의 관계 등을 소개하였다. 조선 진출과정에서 파트너로 일했던 조선인 상인들과의 관계 및 에피소드는 새롭다.

제6장 “동순태의 대상해무역과 결제시스템－청일전쟁 전을 중심으로”는 주로 갑오년(1894년)과 을미년(1895년)의 발송장과 계산서를 분석하여 연간 거래액, 화물 발송의 방식, 운송수단, 상품구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압도적 수입 초과와 불균형 상태에서 사금(砂金)이 중요한 수출 상품이었던 점과 홍삼 밀수의 양태를 소개하였다. 이상은 평자의 1907년 분석의 결과와도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양자를 비교해보면 수출입 상품구성과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일전쟁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 상보적(相補的)이다. 특히 이 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해 동태호와 동순태호 사이의 결제와 대차(貸借) 관계의 분석으로, 저자는 두 상점 간에 상품의 결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인천과 상해를 바로 연계하는 금융결제망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개항장의 화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선-일본 연계의 일본 제일은행, 일본-상해 연계의 홍콩상해은행 금융망을 링크시킨 삼각 결제방식의 구체상을 제시하였다. 평자도 이러한 송금 네트워크는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책은 훨씬 정교하게 사례별로 구체상을 그려냈다. 또한 잡종화폐와 불안정한 환율, 송금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화상들이 환차손을 최소화하고 송금비용을 아끼면서 다양한 결제 방식을 구사했는가를 살펴보고, 이 시기 화상 네트워크 속의 동아시아 역내무역의 결제 방식을 그려냈다.

제7장과 제8장은 저자의 주요 관심사인 잡종화폐 하의 동아시아 시장 조건에서 어떻게 결제 차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역이 규정될 수밖에 없는가를 조선 내지통상을 사례로 잘 다루고 있다. 제7장 “동순태의 내지통상 활동과 그 배경”은 평자의 기존 연구에는 전혀 다루지 않은 부분이며, 동순태호의 조선 내지에서의 상업 활동을 분석한 장이다. 동순태호의 경리 담결생(譚傑生)은 당시 최대 주주이자 사실상의 본점에 해

당했던 상해 동태호 경리 양윤경(梁綸卿)의 신중한 입장과는 달리 내지 통상의 확대와 수출 부문의 강화를 정력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수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던 반면 그 이익 축소를 수출이 보완하고 있다는 점과, 상해에서의 대량의 수입 대금에 대해 한성 동순태호가 물어야 할 이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서 조선에서 수입품을 팔아서 얻는 동전의 가치는 하락하고, 대금으로 상해에 지불해야 할 은값은 올라가던 상황 역시 수입에만 의존하던 동순태호를 상해에 대해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담결생은 되도록 수출을 늘려 중국 현지에서 팔아서 얻는 은으로 수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동순태호는 내지통상을 시도하면서 조선의 국내 상업체제에 타격을 입히기 보다는 오히려 객주가 제공 하는 보증 및 송금 기능 및 특권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8장 “심화하는 조일관계에 대한 대응—청일전쟁 후의 동순태”에서는 청일전쟁 후의 동순태 대외교역 현황을 살핀다. 청일전쟁 후 러일전쟁 전까지 동순태호는 러시아 기선을 주로 이용했고, 수출에서 우피, 쌀이 중요해졌다. 1896년에는 내지통상을 재개하여 러일전쟁 시기까지 전주에서 내지통상을 계속하고 충청남도 강경에도 점원을 파견하는 등, 주로 미곡 거래를 위한 내지통상을 지속해갔다. 그런데 서울은 이때에 백동화 유통이 많아지지만, 지방은 여전히 동전이 위주였으므로 쌀을 사려면 동전이 필요했다. 그러자 동순태는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품을 현지까지 가져가서 팔아서 동전을 마련하여 쌀을 사는데 필요한 동전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상해로의 송금 방식은 1897년에 홍콩, 상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수출입 금융을 담당하던 영국자본 홍콩상해은행과 차터드 은행이 인천에서 대리점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본 경유가 아닌 직접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베로의 쌀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화상과의 대차 관계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전전(戰前)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경유한 우회 송금 역시 중요했음을 지적했다.

\*

제3부는 모두 화폐와 환투기에 관한 파트인데, 한국사 연구자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집중화폐의 상황과 경제사 분석이 많아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다. 제9장 “근대 아시아 속의 조선 지방경제”에서 저자는 조선의 동북부 지역경제가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계기로 어떻게 변용되는가를 루블화의 함경도 유통을 사례로 분석한다. 1860년 연해주를 획득한 러시아가 미개지인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항으로 삼고 교역과 이동의 거점으로 키우면서,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도 이 지역에 진출하였다. 특히 함경도는 환경이 엄혹하여 별이를 위해 1860년대부터 연해주로 노동이주가 많았다. 또 조선에서는 이 지역으로 식량원인 소와 곡물을 수출했다. 이처럼 함경도는 1876년 개항장 무역의 개시보다 더 일찍 다른 형태로 이미 국제경제와 접촉하고 경험한 사례였다. 조선 동북부 통화 상황에 이러한 국제경제와 연관된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러시아가 1897년부터 발행한 금태환권인 러시아국립은행의 루블 지폐는 190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약 10여 년간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는데, 조선 동북부에도 루블화가 유입되었다. 1880년에 개항한 동북부의 거점 원산에서는 1902년 즈음부터 루블화가 출현했다.

예전에 연해주에 외지 별이를 나간 조선 노동자와 교역으로 루블화를 얻은 조선 상인들은 국내에 루블화를 가져오지 않고 자유항으로 무관세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계제 면포 등 공업제품을 싼 값에 사서 다 소모하고, 이 공업제품을 함경도에 가져왔었다. 그런데 1901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항 제도를 폐지하고 자국 공업품의 보호를 위해 고관세 정책을 펴면서 더 이상 공업제품은 싸지 않게 되었다. 사금(砂金)으로 바꾸어 갈 때도 면세였던 것이 관세가 붙게 되었다. 그러자 그곳에서 공업제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원산에 들러서 루블화로 이들 공업제

품을 구입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더 이문이 남게 된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원산 화상들이 상해에서 이들 공업제품을 수입해 와 판매하고 루블화를 결제화폐로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화상들이 조선인들에게서 루블화를 받은 이유는 상해로 공업제품의 수입대금[銀兩인 上海兩]을 결제할 때 이 루블화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해에는 러시아은행인 노청은행(露淸銀行)이 있어서, 높은 가격으로 루블화를 상해량으로 환전해주었다. 이처럼 원산에는 루블화가 대량으로 들어왔어도 화상 네트워크를 통해 상해로 빠져나가버리고 국내 유통과 연계되지 못했다.

한편, 조선이 식민지화되면서 일본은 루블화의 함경도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바로 환전을 해주어 이러한 순환은 끊기게 되었다. 게다가 함경도에서 연해주로의 주요 수출산업이던 소 수출도 쇠퇴하였다. 기선의 등장과 운항 시간 단축으로 중국 산둥에서 연해주로 대량의 소가 수출되게 되고, 냉동선의 등장으로 미국과 호주에서 쇠고기 냉동육이 수입된 데다, 현지 소 사육도 늘어난 반면, 조선 내에서는 소 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함경도는 연해주와의 연계가 희박해지고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국민경제”속으로 강하게 편입되게 되었다.

제10장 “일본의 만주(滿洲) 통화정책의 형성과 상해와의 관계”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군이 현지에서 지불 수단으로 발행한 군표 유통의 실태를 추적하였다. 일본은 재정적 압박 속에서 외채를 발행하여 러일전쟁을 힘겹게 꾸려가고 있었다. 전장(戰場)인 만주에서 일본정부는 금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물자조달을 위한 화폐로 금본위인 일본은행 태환권을 증발하지 않고 1897년 금본위제 이행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엔 은화(円銀)와 태환되는 군표를 발행했다. 대신 법정화폐인 금본위의 엔화(金円)와는 군표 1엔= 금엔 90전으로 공정가격을 설정하였다. 만주와 중국은 은본위제 지역이었으므로 은화 태환권인 군표가 통용될 수 있었다. 1904년 2월 개전 직후부터 군표 약 2억 엔이 만주에 뿌려졌고 일본군은 원활한 군표 유통을 위해 병참 부서에서 군표와 은엔을

태환해주었다. 그런데 군표는 점차 만주의 개항장인 영구(營口, 牛莊)에 집중되었다. 왜냐하면 갑종화폐가 난립하는 만주의 문란한 금융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군표의 신용이 높아지자 화상들이 상해 등 타 개항장으로의 결제화폐로 군표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상해에서는 군표를 매입해주는, 즉 상해량으로 태환해주는 요코하마정금은행 상해지점이 있었다. 루블화를 원격지 결제화폐로 사용했던 것처럼 화상들은 군표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구에서 일본으로의 군표 송금도 많았는데, 이 역시 일본을 거쳐 상해로 최종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결제대금을 보내려는 화교 상인들의 우회 송금이었다. 화상들은 각 개항장의 군표 시가(時價)와 태환 편의를 감안하여 여러 송금 루트와 방식을 선택하였다. 심지어는 상품의 결제대금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군표 시가의 차이를 이용한 환투기 목적으로 대규모로 군표를 매입하기도 했는데, 저자는 화상의 환투기에 조선이 포섭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산동성 연대(煙臺)에서는 군표가 넘쳐나서 군표 1엔=금엔 85전 가량으로 낮고 태환을 해 줄 요코하마정금은행의 지점도 없었다. 따라서 산동 화상들은 공정가격인 금엔 90전으로 교환해주는 조선으로 와서 제일은행(第一銀行)에서 태환하여 차익을 남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신으로 상해의 기준화폐인 상해량과 엔화의 환율 변동을 살펴, 조선에 오는 동안 상해량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이면 조선의 제일은행에서 군표와 교환한 엔화로 다시 홍콩상해은행이나 차터드은행 인천지점에서 상해량을 구입하여 상해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차 이익을 얻었다. 흥미로운 것은 홍콩상해은행, 미국 인터내셔널은행, 차터드은행 등도 상해에서 군표 1엔에 88전으로 대량 군표를 구입하여 일본에 송금한 뒤 공정가격인 90전에 교환하여 이문을 얻고, 다시 일본에서 엔화를 파운드화로 바꾸어 런던에 송금하면서 2차 이문을 얻는 방식으로[당시 일본정부는 엔화의 국제적 가치 안정을 위해 해외송금에서 파운드화 대비 엔화 가치를 높게 쳐주었다] 환차익을 남겼다는 점이다. 이처럼 애초의 금 유출 방지의 목

적과는 달리, 공정가격의 설정으로 사실상 근표는 금엔과 연동되었고,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조달이라는 원래 발행 목적을 뛰어넘어 화상의 원격지 결제화폐로 기능하거나, 각지에서 시가를 형성하는 중국 시장의 특성 때문에 환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제11장 “식민지화 전후의 조선 화상과 상해 송금 - 조선은행권의 순환에 미친 영향”은 1904년 10월 “화폐정리사업(貨幣整理事業)”으로 제일은행권(이후는 조선은행권)이 조선의 법정화폐가 되고 일본의 금본위제로 포섭된 이후, 조선 화상의 상해 송금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 화상들은 개항 초기에 수입품 결제대금으로 금과 은화를 조선에서 모집하여 직접 상해로 보내던 방식에서, 제일은행권(후는 조선은행권)을 중개로 일본을 거쳐 상해로 우회 송금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1897년 홍콩 상해은행과 차터드은행의 인천 대리점 개설 이후 이들 영국계 은행을 통해 상해로 직접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들 영국은행 인천 지점의 수수료가 꽤 비쌌기 때문에 급할 때만 쓰고 여전히 일본 우회송금을 많이 이용했었으나, 점차 직접 송금 비율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 영국계 은행의 인천 대리점도 화상에게서 수집한 조선은행권(이것도 엔화)을 직접 상해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한국은행(훗날 조선은행)을 통해 두 은행의 요코하마 지점으로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회송금이나 마찬가지였고 여전히 일본의 금융 인프라를 통해 화상의 교역결제가 이뤄진 셈이었다.

그런데 조선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선에서 대량의 조선은행권(엔화)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자금 유출로 조선은행권의 신용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즉 조선은행권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조선은행의 금 준비금도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마침 1911년 청이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성립하는 신해혁명이 발발하면서 상해에 금융 경색이 발생하자, 위기감에 찬 화상들이 대량으로 상해로 송금을 했고, 이러한 자금 유출과 조선은행권의 신용 위기에 대한 우려가 조선

은행 당국자들에게서 나타났다. 때문에 1913년 조선은행이 적극적으로 만주에 점포를 개설하고 조선은행권을 만주에서 유통시키려 노력한 것은 화교 송금 때문에 생겨나는 자금유출을 메울 자금 확보 차원이었을 것으로 저자는 추정한다. 조선은행은 만주에서 일본으로의 수출금융 업무를 운영하여 일본은행권을 대량 확보함으로써, 조선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송금을 상쇄하려 했다는 것이다.

제12장 “1910년대 간도의 통화유통 시스템 - 조선은행권의 만주 유통과 지방경제의 논리”는 바로 이 조선은행권의 만주 진출을 다룬다. 1911년 설립한 조선은행은 1913년에 봉천(奉天), 대련(大連), 장춘(長春) 세 지점을 만주에 설치한 이래로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동부 시베리아까지 지점망을 확대하였다. 또한 1917년 11월부터는 일본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관동주와 만철부속지에서 강제적 통용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1930년대까지 조선은행권은 다양한 잡종화폐 중 하나로 만주에서 유통되었다. 저자는 간도를 사례로 조선은행권의 만주 유통을 “만선일체(滿鮮一體)”를 추구하는 일본의 대륙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조선은행권 유통을 가능하게 했던 지역 상인들과 지방경제의 논리를 파고든다.

간도는 길림, 블라디보스토크, 청진 세 곳과 주로 원격지 교역을 했는데, 이곳 화상들은 원래 루블화와 엔화(일본은행권 등)를 원격지 결제화폐로 사용하고 길림성 지방정부 산하 관전국(官錢局, 훗날 省銀行)이 발행하는 불환지폐인 관첩(官帖)을 지역 내 통화로 주로 썼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가 금 태환을 중지하고 러시아혁명까지 일어나면서 루블화가 유통 불능 상태가 된다. 때마침 1916년 즈음부터 간도의 대두 및 가공품이 조선 청진을 거쳐 고베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1917년 조선은행이 간도 용정(龍井)에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조선은행권이 결제화폐로 환영받게 되었다. 그런데 대두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결제화폐로 조선은행권이 더 많이 유입될수록, 농촌 내지에서 대두를 매입하려

면 농촌에서 수수하는 길림관철이 더 많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간도에 유입된 조선은행권을 일단 길림으로 보내서 길림관철로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를 담당할 것이 간도의 화상이었다. 따라서 조선은행권의 유입으로 지역화폐가 구축되기보다는, 오히려 둘 다 수요와 유통이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다. 저자는 조선은행이 지점망을 확대하는 바람에, 화상이 간도에 들어온 조선은행권을 만주 내륙의 길림, 장춘으로 내돌릴 수 있었고, 오히려 유통권의 확대를 저해했다고 평가하여, 화폐의 유통이 Top-down식의 정책 의도 그대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논리에 의해 규제된 측면을 강조하였다.

\*

종장 “조선개항기의 역사적 위상 - 화상 네트워크가 만든 『지역』”은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를 스스로 밝힌 부분이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화상네트워크에서 조선의 개항은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창출했는데, 조선의 인프라, 금융서비스, 전통적 상업체제 때문에 조선에서 화상의 활동은 타 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었다. 우선 조선과 중국의 교역은 무역의 불균등이 심하여, 조선의 수출은 없고 중국에서 수입만 많았기 때문에,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늘 문제였다. 두 지역 간에 직접적인 송금망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역 개항장 화교 간의 다각적 네트워크가 이를 지원하여 금융 인프라의 미비를 보완했다. 저자는 조선 화교의 내지통상을 외국 자본의 내지 침투와 같은 제국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상해에 지불할 자금을 절약하기 위한 화교의 경영자적 전략에서 재해석하였다. 또 화상은 일본이 조선과 동아시아에 구축한 인프라, 전신, 기선항로, 금융망을 적극 이용하여 발전한 측면을 지적하여 청일 경쟁의 단순구조를 지양했다. 조선상인과의 관계에서도 화상의 일방적인 침투나 압도가 아니라 조선인 중개상인의 역할이 컸음을 강조하여,

동순태의 사례에서 서울과 지방 진출 모두 조선 객주를 거점으로 진출했던 점, 화상의 거래에 조선인 거간이 이용되었던 점, 국경무역에서도 특화된 거간의 활동이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중개인의 존재라면 해외자본의 진출 과정에서 중국도 매판(買辦)이 있고 일본도 도매상의 존재가 있는데, 조선의 특징을 두 가지로 특별히 지적한다. 첫째는 조선화상과 조선상인 간은 신용거래였고, 한 달에서 수개월의 약속어음을 주로 사용하여 일본의 현금거래와 달랐던 점이다. 하나의 거래에는 2자간 신용이 계속 이어지는 연쇄로 성립하였다. 이는 상해 화상과 서울 화상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2자간 신용 연쇄가 성립했는데, 여기에 조선상인도 포함되어 하나의 연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 상인은 조선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무역금융을 활용했다. 따라서 일본상인과의 거래보다 지불의 유예나 할인처럼 교섭[negotiation]이 가능한 화상과의 거래가 조선 상인에게는 유리하고 편리했는데, 반면에 이러한 거래 형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았다. 또 상해에서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 바로 조선 상인까지 연쇄적으로 직접 영향이 미쳤다. 두 번째로 화상은 객주를 이용하거나 홍삼 수출에서 보이듯이 기존 조선 상인의 독점적 특권을 침해하고 침투하기보다는 권력과 유착된 이들 조선 특권상인과 결탁한 측면이 많았다. 조선정부에 유착한 특권적 조선상인은 이후 대부분 몰락하지만 일부 살아남은 자들은 특히 금융업자 중에 식민지권력과 유착하여 자본가로 성장하는데, 화상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면서 조선 시장에 접근하였다.

저자는 제국의 팽창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에 화상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화폐 문제에서 해석하였다. 루블화, 군표, 조선은행권의 만주 및 조선 북부에서 유통되는 양상을 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각 통화가 자금 순환에서 각 계층 및 단계별로 링크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저자는 실제로는 위의 세 러시아, 일본 통화가 국제적 금본위 체제 아래에서 훨씬 사정거리가 넓은 통화로 하위의 지역[local] 차원에서 최상위의 전

지구적[global] 차원까지 함께 연동되어 있었음을 특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화의 광역 유통은 통화를 발행한 정치적 주체나 제국의 의도를 뛰어넘어 작동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란 표현에 대해서 저자는 분석 단위로서 국가가 아닌 지역을 보자는 주장은 많지만, 이 지역을 한국 내의 특정 지역의 의미가 아니라 국경을 뛰어넘어 범주화되는 지역 개념으로 상정할 때 개항기 동아시아 경제의 실상이 더 잘 보인다고 지적한다. 조선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 화교네트워크 속에 개항 후 조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포섭되면서, 상품과 자금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다국간(多國間) 교역이 전개되었다는 식이 아니라, 상품과 자금이 조선을 찍고 통과하는 식으로도 움직인다[환투기의 통과지점]. 이런 식으로 화상이 조선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시장의 미성숙 때문이기도 하다. 내재적 발전론은 조선에 이미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하지만, 국민경제로 통합되기 전의 여전히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지역경제의 분절 상태였다고 저자는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가로지르는 지역이 형성될 수 있었고, 함경도-만주가 하나의 지역으로 묶일 수 있었다. 조선 안에 포함되면서도 국경을 넘어 타국의 일부와 하나의 지역을 형성한 것이다.

\*

이상으로 되도록 경제사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책의 전체 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 그 와중에 잘못된 요약이 있다면 저자에게 양해를 구할 따름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사료에 깊이 천착하고 꼼꼼히 사실을 추적한 점이다. 무엇보다 저자가 제시한 수많은 표는 긴 세월과 공력을 소모한 뒤에야 완성할 수 있는 성과라는 점을 꼭 짚고 싶다.

그렇지만 독자로서 의문이 남는 점도 있다. 첫째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

판과 극복은 좋지만 거꾸로 경제적 접근에 편향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저자가 책 전체를 관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의 논리는 청일의 정치적 경쟁이 무엇보다 역사상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는 근대 조선이란 특수 지역에서 매몰된 사실(史實)과 역사상을 발굴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평자 역시 그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에 섰기 때문에 화상의 조선 진출을 동아시아 화교네트워크의 연장 및 확대과정 속에서 해석하고, 등장과 경영, 발전, 청일전쟁과 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도 상인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강진아 2014(1), (2)). 그렇지만 평자가 똑같이 경계하는 것은 출저(拙著)의 서장에서 상세히 지적했듯이, 조공무역체제·아시아간 교역론·화상 네트워크론 등 일본의 동아시아경제사 연구에서 짙게 드러나는 경제 논리로 정치 논리 뒤집기 역시 하나의 편향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평자가 “경제 네트워크 연구에 경도된 일본학계의 연구 경향과 청의 대조선 정책이라는 정치적 접근방식에 경도된 한국학계의 연구 경향”의 동시적 극복이 필요하고, 그 사례가 조선화상 연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었다(강진아 2011(1): 28). 동순태호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조선화상의 가장 큰 특수성은 바로 청의 정치적 후원을 거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특수한 정치 자산과 청일 경쟁의 정치적 동향과 비즈니스의 깊은 연관성이다. 한편 그림에도 불구하고 화상 네트워크는 이러한 정치적 자산마저도 친인척 관계와 자본으로 연계된 다국적 화상 네트워크의 한 자원(資源)으로 이용했을 뿐, 청일전쟁에서 전시 호황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에 적극 협조하며 자산을 키워나가는 등 정치에 종속되지 않는 아이덴티티를 가졌다. 이러한 이중성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국민국가 사관(史觀)의 폐해인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극복해야만 하지만, 그 반대로 경제적인 이해득실로만 설명하는 극단의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여전히 일본학계의 이러한 경제주의 안에 있다. 예를 들어 조선화상의 특질을 논할 때, 저자는

일본에 대해서는 화상이 일본이 구축한 인프라를 이용해 교역이든 환투기이든 활동했던 점을 들고, 반면 조선화상이 조선상인에 대해서는 조선의 상습관이나 거간의 존재에 규제된 점을 들어서, (일본)제국이 (화상) 경제에 이용되거나 외래의 화상이 조선의 지역경제에 규정된 측면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다른 지역의 화상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조선화상의 특질로 보기 어렵다. 화상은 어디가든지 다중국적(多重國籍)을 가지며 비즈니스를 제일의 준거(準據)로 활동했고, 동남아시아와 구미에서도 (구미)제국의 현지 인프라를 이용하지만, 반대로 (원주민의) 현지 상습관에 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화상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조선에서만 누렸던 청의 특수권익과 정치적 비호이고, 그런 만큼 조선을 두고 일본상인과의 경쟁에서도 정치적 동향에 따라 교역 내용과 형태가 -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대응을 통하되 - 재편되었던 측면이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상인의 일반적 행동양식의 결과 상호 규제나 원-원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스케치를 끝내버리면, 자칫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덕흥호 사건과 그를 둘러싼 교섭을 분석하면서, 저자는 개항장을 둘러싼 제도의 형성과정의 국가의 레벨에서만 논해질 수 없고 확대하는 동아시아 지역 내의 상품, 사람의 흐름이 제도를 형성하고 변용시킨 면을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石川 2016: 66), 일본은 결국 다른 동아시아 개항장에서는 타국인에게 개방한 조계를 조선에서만은 전관조계로 고집했다. 따라서 결국 제도마저도 왜 조선에서만 특수권익을 고집했는지 그 특수성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지통상에 대해서 화상의 내지통상을 상해와의 교역에서 수지균형을 추구하고 환차손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해석한 것은 분명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 국가 관계라면 화상이 수출 확대를 추구해도 개항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내지까지 갈 수 없다. 영국과 구미열강이 개항장에서 수출품 매집 단계에서 매판을 개입

시켜 적극적으로 내지통상을 청에게서 쟁취해내고 전개했던 것과 화상의 조선에서의 내지통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화상의 특징이나 조선의 특징으로 지적된 측면들이 다분히 중국과 동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넣을 때 보편적이라는 점이다. 일본상인의 은행금융 이용과 비교하여 저자가 지적한 2자간 신용의 연쇄는 다분히 중국적 특색이다. 결제용의 어음이 할인되기도 하고 연말에 상호대차를 진행하면서 집중 거래되는 것은 중국의 보편적인 상관행이다. 평자는 오히려 중국 개항 초기에 구미자본과 중국매판 사이에 발생했던 수많은 분쟁의 구도와 모델이 그대로 화상과 조선상인의 분쟁 사이에 반복되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출처에서 분석했듯이 광동 화상 네트워크 자체가 순수한 중국 상인자본이라기보다는 수백 년간 광동에서 서구 자본의 매판 활동을 통해 중서(中西) 상업문화를 접목시킨 집단이었고, 근대 동아시아 개항장에서 활동한 화상들은 광동 상인뿐 아니라 다른 화상들도 개항장에서 작동하는 서구의 상습관을 학습하면서 중국적 관행을 지켜나갔다. 할인과 네고가 통하면서도 기일을 초과할 시에 하루 단위로 이자를 부여하고 저당 잡은 부동산을 압류하는 철저함, 두 가지의 모순적 공존과 투쟁은 구미자본과 중국인 매판 사이에서도, 화상과 조선인 거간 사이에도 존재했다.

또 다른 사례는 제3부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외화(外貨)의 지역적 유통 문제이다. 여기에서 핵심적 키워드는 잡종화폐 하에서 외화의 원격지 결제화폐로서의 기능, 화상의 이러한 외화 이용이 가져오는 제국 정책의 왜곡, 이를 가능하게 한 개항장 네트워크를 이용한 환투기이다. 그런데 비단 만주와 함경도뿐 아니라 중국 시장은 각 지역이 국내외 통화가 복합적으로 유통되는 잡종화폐 상황이었고, 구미의 식민지가 되기 전의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잡종화폐가 아닌 지역은 국민국가 건설을 시작한 일본, 그리고 서구제국에 의해 국민국가적 통제를 받게 된 식민지 이후의 동남아시아일 뿐으로, 아시아는 본질적으로 잡종화폐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조선만은 화폐경제 자체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동전과 쌀, 비단 정도가 공존하는 간단한 구조였지만, 화폐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이런 상태는 더했다. 일본 역시 송전(宋錢)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에도 시대에 엄격한 화폐 통제가 이뤄진 면에서 아시아에서는 마찬가지로 특수한 경우이고, 메이지유신 이후는 말할 것도 없이 여타 아시아와 달랐다. 반면 중국은 광동성의 경우 지방 정부가 발행한 은화, 동화, 지폐와 더불어 지역 내의 홍콩상해은행 지폐와 차터드은행 지폐가 1920년대까지 원격지교역뿐 아니라 지역 내 일상적 교역에서까지 결제화폐로 사용되었다. 중국 각 성들은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은화, 동화를 마치 외국처럼 타성에 유통시키면서 시가를 형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화의 원격지 결제화폐로의 이용은 드물지 않았으며, 소위 “매공매공(買空賣空)”, 상품이 개입되지 않고 화폐끼리 교환하여 차익을 노리는 환투기가 관행적으로 만연했던 것이다. 이 네트워크에 조선이 얽혀 들어갔다고 해도, 저자도 지적했듯이 환투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지점이 하나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원산에서 루블화의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화상의 환투기 대상이 된 루블화는 조선 내부 경제에 투여되거나 어떤 적극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선경제와 동아시아 내지 글로벌 외부경제 사이의 교섭을 보기에는 환투기와 같은 단기적·표피적 현상보다는 실물경제에 대한 분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루블화는 상해로 유출되었어도, 연해주에서 노동이나 교역행위로 벌어들인 가치는 결국 공업제품이라는 형태로 치환되어, 원산 주위의 함경도 내지에 뿌려졌다. 이러한 실물의 흐름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야말로 국제경제로의 편입이 조선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위해 정교하게 접근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제1부와 제2부의 조선 화상과 제3부의 만주에 대한 관심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둥(山東) 화교와 화상에 대한 분석이 향후 요청된다고 보인다. 제2부의 동순태호는 동아시아 화교네트워크의 선두 주자로서 광둥 화교의 지위를 생각할 때 상징적 의의

가 있지만, 조선 화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후 더욱 비중을 늘려갔으며 만주 및 연해주로의 계절적 노동 이주, 농업 이주, 교역망 구축에서 최대의 화상이었던 것은 산동 화교였다. 그만큼 조선과 만주에서 조선민과의 접촉, 충돌과 협력이 전면적이었던 그룹이다. 평자는 복권 판매업을 분석하여 청일전쟁 이후 새로운 개척분야였던 복권 판매업이 1908년에 중단되면서 많은 광동화상들이 조선에서의 영업을 접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산동화상들은 이때와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강력한 영업 분야를 가지고 있었으니 바로 소금, 산동염(山東鹽)의 판매였다. 산동염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은 대규모 천일염 지대를 조선에서 조성하고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독일에게서 청도(靑島)를 빼앗은 기간 동안 청도염을 개발하였으며, 관동주에서 관동염을 개발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산동염의 조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산동염은 기선이 아닌 정크선으로 조선에 반입되었고, 이 영업 분야는 산동 화상이 견고하게 장악했던 것이다. 광동화상이 자바, 홍콩, 광동 조주(潮州)의 설탕을 조선에 수입해서 판매했던 것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저자의 문제의식인 조선을 둘러싼 제국, 화상, 지역의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산동화교에 대한 연구는 꼭 채워야 할 공백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고 싶었으나 그 점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갈증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조선을 둘러싼 화상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기존 연구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 책이 화상 네트워크의 연구 분야에서건 개항기 조선 경제에 관해서건 필독서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자가 책 곳곳에서 보여준 탄탄한 분석력과 실증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다.

